

새 정부 경기개선 기대감 반영 광주 경기전망 3년만에 최고

경기전망지수 103...기준치 회복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효과

소비 위축 지속 부정적인 전망도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3년 만에 회복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지원 기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수는 지난 분기(72)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103을 기록했다.

RBSI는 유통업체들의 현재 체감경기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 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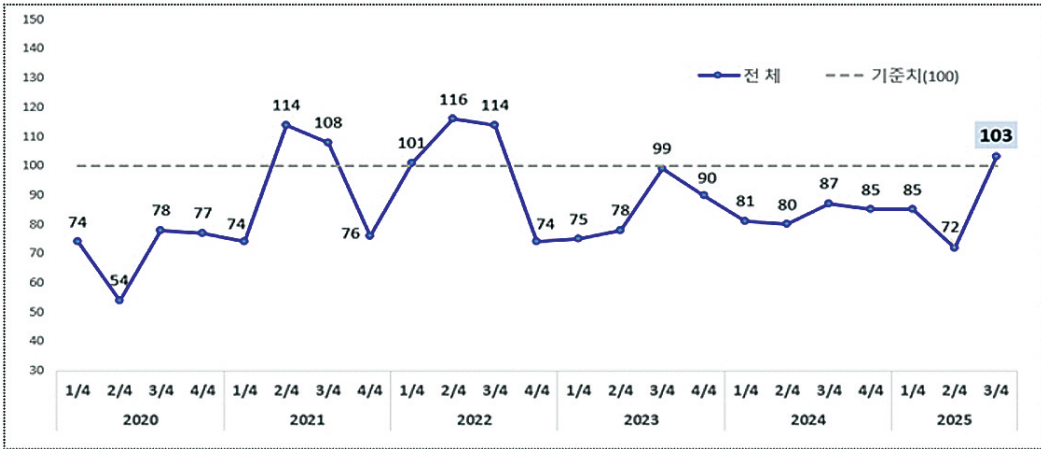
이번 수치는 12분기 만에 기준치를 회복한 수치여서 현장 체감 경기가 개선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2022년 3분기(114) 이후 줄곧 100 아래의 '침체기'를 겪어왔다.

이번 반등은 이재명 새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경기 부양 정책 기대, 여름 휴가철 성수기 소비 상승 등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상의는 다만 "일부 업태의 부진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반등이 실질적인 소비 회복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를 제외한 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대형마트(75)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소비자 심리 위축, 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100)은 정치적 불안 해소 등으로 소비 심리가 소폭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기준치를 회복했지만, 경기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소비 위축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동시에 내놓았다.

편의점(106)과 슈퍼마켓(118)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름철 성수기의 기대감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 속에서도 다음 분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 출범이 업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업체의 70.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3.2%가 '대·중·소 유통 상생 협력 촉진'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42.6%), '유통 규제 완화'(27.7%),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8.5%) 순이었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경영과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요인으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소비심리 회복 지연(80.9%), 인건비·물류비·전기비 등 비용 부담 증가(48.9%), 시장 경쟁 심화(29.8%),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27.7%)을 꼽았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RBSI 지표가 12분기 만에 기준치를 회복하며 소매·유통업계에 모처럼 희망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계절적 요인이 맞물린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면서 "새 정부는 앞으로 일회성 부양책을 넘어 중소 유통업체의 수익성 회복과 체감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등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47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대형마트 4개, 백화점 2개, 편의점 17개, 슈퍼마켓 11개, 전자상거래 13개 등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전, LG유플러스와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데이터 연계 협력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1일 한전 강남지사서 LG유플러스와 '데이터 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한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전이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설득과 협력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

한전은 앞서 2021년 7월 SK텔레콤, 2023년 4월 KT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LG유플러스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통신 3사와의 완전한 연계 체계를 만들어 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전력사용 패턴과 통신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고, 장기간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현재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공무원은 전화·방문 부담을 86% 이상 줄이고, 기존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대비 6900여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거주지



내 기기 설치 또는 생활 간섭이 줄어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를 통해 13명의 생명을 구조하고는 성과를 거뒀고, 이같은 성과가 인정받아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돌봄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은 한전 ICT 기획처장은 "AI와 데이터는 이제 생명을 지키는 기술로서의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편,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 여름휴가 평균 3.7일...절반 이상이 휴가비 지급

경총 528개 기업 조사

올해 기업들의 평균 여름 휴가 일수는 3.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42.5%가 휴가 일수 '3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5일 이상'은 32.6%였고 '2일 이하'(12.8%), '4일'(12.0%)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4일'(19.6%), '3일'(15.7%) 등이었다.

300인 미만 기업은 '3일'(45.8%)이 가장 많았고 '5일 이상'(28.8%), '2일 이하'(14.4%), '4일'(11.1%) 순이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단기간(1주일 안팎) 집중 휴가를 실시하는 방식이 77.3%를 차지했으며, '장기간(1~2개월) 실시' 16.1%, '2주간 교대' 방식은 6.6%였다.

'단기간 실시'와 '2주간 교대' 방식을 택한 기업들의 휴가 기간은 '7월 하순'(49.4%), '8월 초순'(42.2%), '8월 중순'(4.0%) 순이었다.

또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53.9%는 휴가비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보다 2.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기업은 63.3%로, 작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6만전자’ 불장 속 바닥찍고 7만원벽 뚫을까

전문가들 “V자반등 가능성”

삼성전자 주가가 한달 가까이 6만원대에서 오트락내리락을 반복하면서, 7만원대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부진은

대체로 '일회성 요인'에 따른 것으로, 3분기부터는 바닥을 딛고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승 속도를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증가 기준 5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6월 24일 6만500원으로 다시 6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6월 30일(5만9800원)을 제외하고는 6만원 선을 유지 중이다.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직후 3조9000억원어치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한 점 등도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플러스다모아예금’ 특별 우대금리

21일까지 이벤트 진행

광주은행은 "오는 21일까지 광주은행 대표 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이벤트는 별다른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은 모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기본금리 연 2.02%), 1년 최고 연 2.62%(기본금리 연 2.08%)다.

예금 가입이 가능한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로, 총 모집 한도는 1000억 원이다. 예금액이 모집 한도에 달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광주Wa뱅크 앱,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서경아 광주은행 수신평탁부장은 "최근 시장 금리가 변동되면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누구나 조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내 유가 4주만에 하락세 전환

광주·전남은 상승세 여전

다음주부터 하락 이어질 듯

이번 주 국내 주간 평균 유가가 4주 만에 하락한 반면 광주·전남 유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서울 등 주요 지역 유가 대비 광주·전남지역의 유가 상승 폭이 적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2주차(6~10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667.5원으로 전주 대비 0.6원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는 1.2원 하락한 1530.2원, 등유도 0.5원 내린 1296.8원을 기록했다.

국내 유가 하락은 4주만으로, 국내유가는 이스라엘-이란 간 '중동 분쟁'을 계기로 지난달 초부터 치솟은 국제유가 영향으로 6월 2주차부터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

국내 유가는 휘발유 기준으로 6월 2주차에 1ℓ당 1627.7원으로 전주(1629.8원) 대비 2.1원 하락한 뒤, 3주차(1635.5원), 4주차(1663.2원), 7월 1주차(1668.1원)까지 상승한 뒤 하락전환

했다.

지역별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곳은 평균 유가가 하락했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7곳은 유가 상승폭을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740.2원으로 전주 대비 3.4원 하락했으며, 부산(-3.37원), 대구(-1.6원), 인천(-3.99원) 등도 유가 하락전환했다. 반면 광주(+0.94원), 전남(+2.05원), 경남(+0.33원) 등은 상승했다.

상표별 가격에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1ℓ당 평균 1677.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는 1635.1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OPEC+ 8월 증산 규모 확대 결정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등이 상승폭을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두바이유는 배럴 당 70.7달러로 전주 대비 1.8원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 유가 상승 및 하락 추세는 2~3주가량 이후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들어 다음 주 까지도 국내 유가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년7개월만에 최고

6~9개월 후 경기흐름 가늠 지표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집계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째 상승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08로 2021년 11월(101.09)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전환점을 빨리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미리 가늠하는 데 쓰인다.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고,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22년 7월(99.82)부터 20개월 동안 100 아래에 머물다가 지난해 2월(100.02) 100을 넘어섰다.

이후 완만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8~11월 4개월 동안 하락했고, 다시 12월부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수준은 OECD가 공개한 12개 회원국 중 영국(101.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4위를 기록했고, 올해 2월 3위로 오른 뒤 3월부터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수 수준은 주요 20개국(G20) 평균 100.50, 주요 7개국(G7) 평균 100.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강한 미래의 경기 확장 기조를 가리킨다는 뜻이다.

실제 최근 지표를 보면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4월(93.8)과 5월(101.8), 6월(108.7) 석 달 연속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서도 올해 2·3·4·6월 수출이 1년 전보다 늘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8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
6	12	18	37	40	41	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
1	6개 숫자일치		2,535,566,42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563,034			
3	5개 숫자일치		1,544,365			3
4	4개 숫자일치		50,000			153
5	3개 숫자일치		5,000			2,567